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 발달*

안은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를 위해 수집된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빈곤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그 효과를 촉진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요소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빈곤 아동의 발달부 분인 우울, 공격성, 공동체성, 대인관계와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를 촉진시키는 활동요소인 평가, 만족,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주요 변수로 구성하여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발달에 관한 잠재 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로 빈곤아동의 우울, 공격성, 대인 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발달을 보였다. 또한 아동발달궤적의 조건모형에서 음악평가는 공동체성의 변화율에, 태도평가는 우울과 공격성, 공동체성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은 공동체 성과 대인관계의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심과 참여는 공격성 초기치 에 부정적 영향을,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우울과 공격성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돕 고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의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의 빈 곤층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빈곤아동 발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빈곤아동, 아동발달, 오케스트라, 잠재성장모형

1. 서론

아동기에는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이며 성장한다. 아동들은 이 시기에 어떠한 환경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빈곤이라는 개인적 배경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임.

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 하는데 장애를 가져오고, 그 장애들이 누적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대 간에 빈곤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허남순 외, 2005).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낮은 학업성취도 및 학업부진과 같은 학업적인 문제, 반사회적 행동, 비행 등의 행동적 문제, 우울, 공격 등의 심리사회적 발달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박현선·정익중·구인회, 2006; 김은한·유서구, 2012; 신인순, 2012), 빈곤아동들이 받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매년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미, 2011).

아동은 빈곤이라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발달을 방해받고 있으며 그로 과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발달하고 있는 교육이 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의 인지발달,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신체·정서적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성도의·김세준, 2012; McCarthy, 2002),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인성교육, 창의성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엘 시스템아는 사회복지 사업으로 음악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람들 특히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통하고, 사회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결핍을 충족시켜주어(유문무, 2010), 오케스트라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동들의 경제적 장애를 제거해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고 있다(Lesniak, 2012, 2013).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의 빈곤, 마약, 폭력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고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음악가를 육성해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엘 시스템아(El Sistema)를 통해 약 25만명의 극빈층 아동이 클래식을 배우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음악적인 요소를 배움과 동시에 음악을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Churchill, 2011).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한 엘 시스템아는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과 동시에 사회적 개발 효과를 검증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이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사회복지실천현장 또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참여를 통한 빈곤 아동의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다양한 접근과 활성화된 현 상황에 비해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며, 오케스트라 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연구(김현정, 2010; 김신애, 2012),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성시민, 2012; 윤혜림, 2014),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정다은, 2012; 김다솜, 2013),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심수민, 2008; 양종모, 2013), 인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남지영, 2012; 윤성원, 2013)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영역에만 치우친 횡단적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포괄적이며 종단적인 발달케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로 검증되고 있는 정의적 영역의 일반아동보다 빈곤아동에게 높게 나타나는 우울과 공격성,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효과로 많이 검증되고 있는 사회적영역의 공동체성과 대인관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효과성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촉진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없다보니 프로그램의 개입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단순히 활동 여부에 의해 아동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양질의 활동 특성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어떠한 요소들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보다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와 같은 맥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교육의 배경이 되는 교육학과 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단순히 문화예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최종혁 외, 2010).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예술교육이 각종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강사를 초빙하거나, 대상 아동을 관련 교육에 의뢰하는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회복지학에서는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활동 요소들을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아동들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는 강사들의 음악 교육과 더불어 강사와 아동들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활동력이나 태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들의 환경에 맞추어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아동들의 음악적인 능력 향상과 더불어 참여 태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효과성을 입증하였어도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더 이상 문화 예술교육에 참여할 의지가 없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관련 연구는 강사를 통해 아동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의 발달을 부정적 메커니즘만으로 볼 수 없으며 빈곤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원활히 적응하는 아동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개입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천이론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변수는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엘 시스템아는 지역을 단위로 음악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 구성원도 아동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게 되어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고 있다고 보았다(김현미, 2013). 따라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아동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빈곤아동의 발달에 미친 효과와 그 효과를 촉진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요소를 살펴보아

결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사업 진행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문화예술교육과 빈곤아동

(1)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21세기는 상상력이나 창의력 같은 능력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어 창조와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 계층에게는 공감 능력을 배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이 중요시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성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고경자, 2009; 김세훈, 2009).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그 효과성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외국문헌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McCarthy(2002)는 신체적·건강 차원, 인지·심리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Winkley, 1996; Baum, Owen, & Oreck, 1997; Oreck, 1997; Burton, Horowitz, & Abeles, 2000; Baumgartner et al., 2006; Montero, 2006; Waller, 2006; Malchiodi, 201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맹영임 외, 2005; 설연경, 2012). 문화예술교육은 우울이나 불안감이나 공격성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김안식 2010; 김봉년 외, 201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교정시설이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함양에도 영향을 준다(맹영임 외, 2005; 황희정, 201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대상자들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른 효과성 연구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써 학교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복지관, 보육원, 문화원, 소년원, 교도소 등에서까지 운영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는 대중에게 더욱 익숙해지고 있다(오세곤, 2011:168). 이러한 문화복지사업을 기본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운영 목적은 우리나라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원하여 사회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박미애, 2009; 최중혁 외, 2010)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운영되면서 문화예술의 헤

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문화소외계층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 문화복지 차원에서 동등하게 지원하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현택수, 2006; 정지영·정지은·이석규, 2014),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 빈곤아동대상 문화예술교육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빈곤아동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적응·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공유되기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성 문화행사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체험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확산되었다(정익중, 2005). 특히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는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문화복지정책을 실현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정부는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외계층은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문화예술의 경험적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김석경, 2015).

이러한 흐름 가운데 빈곤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부방이나 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박미애, 2009)이나, 저소득 밀집 지역인 경기도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최종혁 외, 2010). '2010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219개 복지시설 및 여러 공공, 민간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되었고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시설까지 확대되었다(김혜정, 2014).

빈곤아동들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으며, 최근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원인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빈곤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이 빈곤 아동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정익중, 2005; 김은영, 2011), 빈곤아동이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많이 지원 받을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아졌다(황희정, 2013).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사회적 발달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이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lawson & Coolbaugh, 2001; Jermyn, 2004). 국내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성향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곽윤정, 2010).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정서적 안정, 언어발달, 교우관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김지연, 2013) 효과를 입증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운영한 엘시스테마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오케스트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도 여러 방면으로 입증되고 있다(김소영, 2011; 노충래, 2011; 성도의·김세준, 2012; 정익중·조은아·안은미, 2012; 윤성원, 2013; Catterall, 1997; Torres, 2002).

2)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1)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아동발달 관련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아동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의 우울과 공격성, 사회적 영역의 사회성과 대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성과에 대한 정의적 영역은 인간의 복잡하고도 변화무쌍한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발전적인 변화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고경자, 2009), 정의적 효과에 대한 구성요소는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아정체성, 우울, 불안, 외로움, 정서 상태, 공격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정의적 영역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나 합주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우울감이 감소하거나, 성격이 밝아지고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참여 아동은 비참여 아동에 비하여 우울감이 감소하거나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곽윤정, 2010; 김소영, 2011), '우리동네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아동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직접 연주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학업이나 학교생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우울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다(정익중·조은아·안은미, 2012). GS SHOP과 기아대책의 '무지개상자' 사업 평가(노충래, 2011) 결과,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아동의 성격이 밝아진 것으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김현정(2010)은 합주단활동이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의 성숙을 만든다고 하였다. 김신애(2011)는 음악교육을 통해 인성과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같은 음악적 소통으로 우울감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우울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Torres의 연구조사(Center for Psychological Research at Univ. of the Andes in Merida, 2002) 결과, 엘 시스템아 오케스트라교육은 참여 아동들에게 공격성에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공격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음악교육이 아동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개입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익중·조은아·안은미, 2012). 이를 통해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빈곤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영역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나 학생과 관련된 사회 환경에 미치는 효과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서로 함께 협동 하는 공동체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의 목적은 참여아동들이 협동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Tunstall, 2013). 오케스트라 연주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악기 파트별로 연습하여 전체 합주로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우면서(성시민, 2012)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공동체성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긍정적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범(2005)이 오케스

트라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회성 발달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여러 악기의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특성은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오케스트라 대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등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지역사회에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김현정(2010)의 합주단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합주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소속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격체를 형성시킨다고 보았다.

(2)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를 촉진하는 활동 요소

최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대한 효과나 성과에 대한 연구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엘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 교육은 개인의 교육-복지-문화예술적 수혜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효과를 실현하며,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서지혜, 조은아, 2010).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 프로그램 내용과 더불어 효과를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mford(2006: 107)는 모든 교육에서 양질의 예술교육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예술 교과과정을 갖춘 국가들이 특성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예술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의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노혜련, 김수영, 김영란(2010)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과 외부 환경 관련 변수들을 간과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 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정경은(2011)은 청소년인증수련활동 가운데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참여자 변수와 운영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참여아동의 학습, 경험 및 발전에 대한 상세한 활동 과정 평가, 활동에 대한 자신의 만족, 외부의 관심과 참여 요인으로 보았다. 먼저 활동 과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Bamford(2006: 107)는 참여아동의 학습, 경험 및 발전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이 수학, 문학, 과학적 사고의 성취에 집중해 온 반면, 교육의 예술적·문화적 부분의 질적 평가 기준 자체가 부족하여(Bamford, 2006: 106), 다른 영역보다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참여아동의 학습이나 경험, 발전 등을 상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아동들을 직접 대면하고 꾸준히 관찰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활동중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때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았으며(정경은, 2011),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실제적 지식과 교수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 발달 단계, 동기 유발 방법, 흥미와 관심 등 학습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김현미, 2013). 따라서 오케스트라 교육 운영시 사회복지사나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참여 아동들의 특성과 더불어 참여태도나 활동에 대해 관찰하고 평가하여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과정 평가는 음악평가와 태도평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서 아동들은 먼저 음악적인 향상을 경험한다. 김다솜(2013)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변화 인식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음악적 변화인 악기기술의 향상, 음악성의 향상, 음악 지식의 향상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져서 또래 단원들과 의사소통의 주체가 생기고 이 때문에 대인관계 또한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음악적 지식 향상과 지속적 연습으로 인한 기술 향상 등의 음악적 성취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에 대한 음악적인 평가는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요소가 된다.

또한 아동들은 음악적 성취를 통해 발달에 영향을 받기도하나 아동들의 참여태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참여자들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정경은, 2011). 따라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효과를 높이는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적 향상이나 참여 태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입은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운영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닌다. 국내에서 재정의 한계나 교육지원 인력의 부족, 강사의 낮은 참여의지와 헌신도와 같은 현실적 문제로 자발적인 상호학습이나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신소영, 2013), 현재 사회복지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단순히 문화예술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최종혁 외, 2010), 참여아동들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큰 효과를 나타난 엘 시스템아가 기적을 보인 명백한 이유 중 하나는 아동들이 하루에 3~4시간, 일주일 중 6일 동안 몇 년을 활동하기 때문이며(Booth, 2009), 이를 토대로 엘 시스템아형 오케스트라인 우리동네오케스트라도 개인 및 그룹레슨 2회, 이론 및 합주수업인 통합교육 1회 등 총 주 3회의 교육일정으로 운영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빈번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효과를 높였다. 반대로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학교밴드, 합창단, 무용단의 운영과 1년에 한번 정도의 연극이나 미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예술교육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mford, 2006:110). 결국 효과라는 것은 단기간 투입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활동에 있어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정경은, 2011), 따라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은 일관되고 총체적이어야 한다. 질적 수준이 낮은 예술교육 경험은 아동, 환경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과의 연계 없이 고립되고 단절된 프로그램이다(Bamford, 2006:116). 따라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과 환경이 함께 연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아동 혼자 연습하고 활동하여 아동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환경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사회복지사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유지해 왔으며 이 관점은 체계이론

(system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최옥채 외, 2002). 따라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통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개입하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입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보인 엘 시스템은 부모의 참여요소를 중요하게 보았다. 아동들이 활동 시 부모들의 양육방법이나 어른들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들은 부모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기 전에 가정방문을 통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부모의 참여를 통해 자녀들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앉아서 듣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등에 대하여 알려주어(Booth, 2009), 부모들의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아동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존감을 높여준다. 신소영(2013)은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참여 아동들에게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의 자각과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사회공헌 연주 프로그램의 기회도 자주 마련해야 하며, 김현미(2013)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한다면 아동들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호심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축제 참가는 자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어 자기 성취감과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존감을 높여줄 것으로 보았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아동들의 발달কে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¹⁾’에 2년 이상 활동한 아동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들은 개인 및 그룹레슨 2회, 이론 및 합주수업인 통합교육 1회로 총 주3회 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한 아동들이다.

아동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간 약 6개월 단위로 총 4회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아동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체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담당강사들이 강사들이 2012년 1년간 아동들의 활동을 평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아동 지원 자격은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미만 가정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2) 측정도구

(1) 내생변수

정의적 영역인 우울과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의 개념을 활용한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는 Achenbach가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한 척도로서,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과 공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 시점에 따라 $\text{Alpha} = .869, .815, .864, .911$ 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text{Alpha} = .906, .883, .874, .914$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익중, 이봉주, 임진영, 황매향(2008)의 공동체성과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성과 대인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 시점에 따라 $\text{Alpha} = .800, .845, .770, .873$ 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는 $\text{Alpha} = .950, .947, .815, .869$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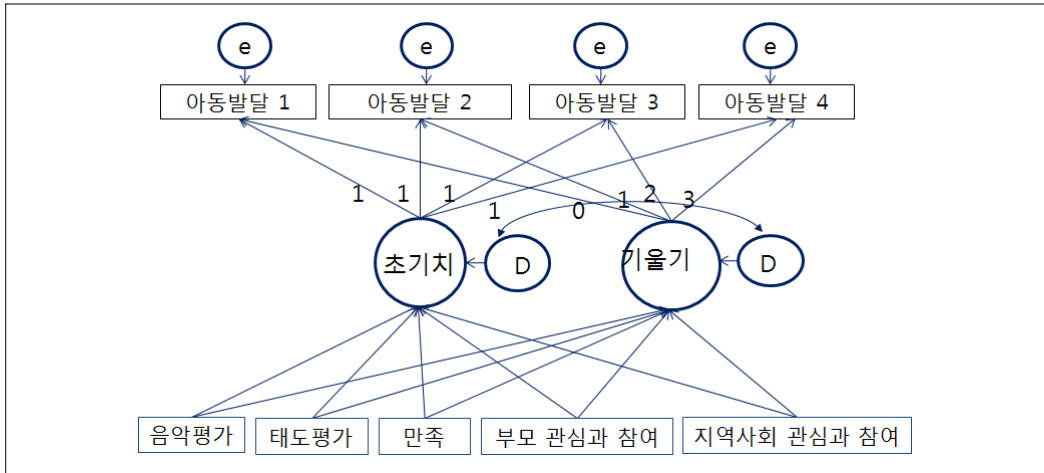
(2) 외생변수

활동 과정의 평가는 교육활동 전체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담당강사들이 교육기간동안 아동을 교육, 관찰하면서 전반적인 음악적 향상 정도와 참여 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활동 평가는 강사들이 2012년 1년간 아동들의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영역은 음악평가(향상 음악회, 정기 연주회, 오디션, 필기시험)와 태도평가(학생행동평가, 출석점수)로 관찰되어 분석되었다. 평가는 음악평가와 태도평가로 아동별로 평가하였으며 100점 만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세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음악평가와 태도평가는 각 영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활동에 대한 자신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정익중, 조은아, 안은미(2011)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ext{Alpha} = .848$ 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외부의 관심과 참여인 부모 관심과 참여와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의 정익중, 김나영, 박계연(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각 6문항과 5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과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 관심과 참여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ext{Alpha} = .759$,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text{Alpha} = .896$ 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빈곤아동들의 발달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에는 SPSS를 사용하고, 잠재성장모형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발달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측치는 회귀대체법(Regression imputation)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4.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아동 중 2년 이상 참여한 85명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아동은 28명(32.9%), 여자 아동은 57명(67.1%)로 남자 아동에 비해 여자 아동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아동들의 학년은 4학년이 55명(64.7%), 5학년이 30명(35.3%)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013년 2월 기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8	32.9
	여	57	67.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5	64.7
	초등학교 5학년	30	35.3
총		85	100.0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분석에 사용될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영향 요인인 음악평가는 가장 낮은 점수는 58.88, 가장 높은 점수는 89.72, 태도평가는 최저점 57.50, 최고점 98.00, 음악평가와 태도평가의 평균은 각각 72.25(7.12), 85.92(6.98)로 나타나 음악적인 평가에 비해 참여 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은 평균 3.73(.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부모 관심과 참여 평균은 3.14(.60),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2.78(.92)로 부모 관심과 참여에 비해 지역사회관심과 참여는 낮으며 편차도 크다. 빈곤아동발달 특성의 각 평균을 살펴보면 우울과 공격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공동체성은 2년간 비슷하게 높은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는 1차 때 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변량 정규성은 변수에 대한 왜도와 첨도로 분별가능한데,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첨도가 절대값 10보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10). 연속변수로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고 첨도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자료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n=85)

변인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음악평가	58.88	89.72	72.25	7.12	.43	-.26	
활동 태도평가	57.50	98.00	85.92	6.98	-1.25	3.34	
영향 만족	2.00	4.00	3.73	.43	-2.14	4.88	
요인 부모관심과참여	1.83	4.00	3.14	.60	.03	-1.00	
	지역사회관심과참여	1.00	4.57	2.78	.92	-.23	-.64
발달 영역	우울1차	12.00	34.00	15.60	3.56	1.13	.49
	우울2차	8.00	28.00	15.60	3.21	1.09	1.58
	우울3차	13.00	31.00	14.90	3.35	2.62	8.85
	우울4차	13.00	29.00	14.63	2.83	2.73	9.63
	공격성1차	19.00	42.00	22.21	4.40	2.23	6.23
	공격성2차	19.00	51.00	23.11	5.31	1.48	2.55
	공격성3차	19.00	37.00	21.18	3.34	2.69	9.53
	공격성4차	19.00	39.00	21.10	3.29	2.05	4.43

공동체성1차	2.50	4.00	3.40	.43	-.16	-1.05
공동체성2차	2.17	4.00	3.29	.49	-.16	-.61
공동체성3차	2.33	4.00	3.33	.45	-.08	-1.05
공동체성4차	2.33	4.00	3.34	.50	-.14	-.99
대인관계1차	1.00	4.00	2.40	.82	.56	-1.05
대인관계2차	1.17	4.00	2.53	.84	.39	-1.18
대인관계3차	2.00	4.00	3.26	.54	-.31	-.74
대인관계4차	2.00	4.00	3.18	.49	.04	-.43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큰 경우에 생기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상관관계를 <표 3>에서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는 기준은 보통 결정계수가 0.6이상으로(김태근, 2006), 본 연구에서 상관계수는 0.6보다 적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36	1																		
3	.230*	.224*	1																	
4	.206	.035	.424***	1																
5	.023	.074	.343**	.387**	1															
6	.023	-.281**	-.043	-.023	-.381***	1														
7	.114	-.153	.050	.025	-.119	.299**	1													
8	-.058	.091	.009	.122	-.032	.056	.188	1												
9	.085	-.019	-.023	.096	-.111	.068	.323**	.599**	1											
10	-.062	-.233**	-.012	.063	-.370***	.685***	.170	.105	.001	1										
11	-.022	-.117	-.190	.064	-.136	.361**	.327**	.316**	.418***	.302**	1									
12	.024	-.007	.082	.107	-.059	.258*	.208	.503***	.571***	.229*	.676***	1								
13	.009	-.017	.083	.167	.013	.260*	.367**	.455***	.665***	.176	.607***	.732***	1							
14	.140	.221*	.454***	.337**	.254*	-.061	-.194	.070	-.076	-.128	-.222*	-.096	-.074	1						
15	.136	.201	.292**	.226*	.205	-.246*	-.098	-.068	-.124	-.239*	-.397***	-.166	-.147	.517***	1					
16	.297**	.200	.220*	.022	.066	-.183	.069	-.077	-.011	-.228*	-.145	-.081	-.034	.375***	.525***	1				
17	.350**	-.107	.025	-.034	-.035	-.007	.175	-.106	-.018	-.144	-.071	-.067	-.069	.200	.525***	.478***	1			
18	.279*	-.050	.287**	.342**	.151	-.167	-.214	-.179	-.182	-.126	-.217*	-.149	-.212	.410***	.263*	.209	.150	1		
19	.136	.100	.246	.019	.085	-.071	-.161	-.170	-.160	-.152	-.265**	-.286**	-.247*	.339*	.323*	.222	.314**	.460***	1	
20	.270*	.115	.332**	.178	.118	-.147	-.169	-.111	-.229*	-.118	-.213	-.119	-.131	.442**	.565***	.579***	.356**	.344**	.412***	1
21	.330**	.032	.252*	.122	.018	-.071	.001	-.044	-.101	-.121	-.157	-.002	-.093	.288**	.456***	.370**	.574***	.218*	.461***	.565**

1: 음악평가 2: 태도평가 3: 만족 4: 부모관심과참여 5: 지역사회관심과 참여 6: 우울 1차 7: 우울 2차 8: 우울 3차 9: 우울 4차 10: 공격성 1차 11: 공격성 2차 12: 공격성 3차 13: 공격성 4차 14: 공동체성 1차 15: 공동체성 2차 16: 공동체성 3차 17: 공동체성 4차 18: 대인관계 1차 19: 대인관계 2차 20: 대인관계 3차 21: 대인관계 4차

주: n = 85 *p<.05 **p<.01 ***p<.001

2) 연구모형 분석

분석을 위하여 먼저 정의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발달কে 파악하기 위해 무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조건모형에서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참여 아동들의 발달계측을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우울, 공격성, 공동체성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는 모형적합도 지수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발달 변화계측 무조건모형 적합도

변수	χ^2	df	p	CFI	TLI	RMSEA
우울	11.528	7	.117	.907	.92	.088
공격성	25.535	7	.001	.849	.87	.178
공동체성	12.559	8	.128	.946	.96	.082
대인관계	73.431	8	.000	.211	.324	.315

다음 <표 5>에서는 발달 변화 계측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우울 초기치 값의 평균은 15.708($p < .001$)로 나타났으며 변화율 평균은 -0.338($p < .05$)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의 초기치의 변량은 3.216($p < .05$)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변량은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우울이 초기치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이 0.338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발달계측은 초기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나, 변화율에서는 변량이 유의하지 않아 변화율 조건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의 개인 간 차이가 있으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우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격성을 살펴보면 초기치의 평균은 22.659($p < .001$)로 나타났으며 변화율 평균은 -1.516($p < .05$)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의 초기치 변량은 20.793($p < .001$)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변량은 14.65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성은 초기치에 개인간 차이가 있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1.516만큼 감소하며 모든 아동의 공격성이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13.742로 나타났으며, 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공격성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특히 초기에 높은 공격성을 보인 아동들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공격성을 보여 오케스트라 참여가 감정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동체성 초기치의 평균은 3.365($p < .001$)로 나타났으며 변화율 평균은 -0.015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성의 초기치의 변량은 0.114($p < .001$)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변량은 0.014($p < .05$)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공동체성이 초기치에 통계적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성이 0.01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성이 초기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을 보면 초기 감소이후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체성의 발달계측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간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 초기치의 평균은 2.389($p < .001$)로 나타났으며 변화율 평균은 0.316($p < .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의 초기치 변량은 0.417($p < .001$)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변량은 0.027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대인관계가 초기치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인관계가 0.31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발달궤적은 초기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나, 변화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1.013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에 대인관계가 높았던 아동들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초기에 낮은 대인관계를 보인 아동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히 초기에 대인관계가 낮았던 아동들의 급격한 증가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발달 변화궤적 모형의 평균과 분산 비교

변수	모수(parameter)	평균(평균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
우울	초기치(Intercept)	15.708(.325)***	3.216(1.518)*	-.475 (.597)
	변화율(Slope)	-.338(.148)*	-.001(.353)	
공격성	초기치(Intercept)	22.659(.426)***	20.793(2.728)***	-13.742 (.426)***
	변화율(Slope)	-1.516(.355)*	14.656(2.195)	
공동체성	초기치(Intercept)	3.365(.047)***	.114(.03)***	-.014 (.011)
	변화율(Slope)	-.015(.02)	.014(.006)*	
대인관계	초기치(Intercept)	2.389(.086)***	.417(.098)***	-1.013 (.347)***
	변화율(Slope)	.316(.031)***	.027(.014)	

* $p < .05$, ** $p < .01$, *** $p < .001$

(2) 조건 모형 분석 결과

다음은 참여 빈곤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만족,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모두 동시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과 공동체성의 경우 무조건모형에 비하여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공격성과 대인관계의 경우 무조건 모형에 비하여 조건모형의 적합도가 높지 않아 공격성과 대인관계의 발달궤적에 따라 모수 1~4시점의 변화모형을 0011로 제안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무조건 모형에 비하여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표 6〉 조건모형 적합도

변수	χ^2	df	p	CFI	TLI	RMSEA
우울	24.091	18	.152	.937	.875	.063
공격성	68.169	17	0	.714	.394	.189
공격성 제안모형	36.915	17	.003	.889	.764	.118
공동체성	23.146	19	.231	.974	.95	.051
대인관계	73.743	16	0	.54	.08	.198
대인관계 제안모형	28.818	17	.036	.908	.806	.091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 〈표 7〉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평가와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초기에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우울의 초기치가 낮으며 지속적으로 적극적 태도로 참여하는 아동의 우울 감소 추이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경험할수록 우울의 초기치가 낮으며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높게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우울의 감소 추이가 완화되었다.

공격성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제안모형을 바탕으로 변인간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공격성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초기치에는 부모와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모두 영향을 미치며, 변화율에는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초기에 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어느 정도 경험하느냐에 따라 공격성의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게 경험할수록 공격성의 감소추이가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체성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평가와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요인은 음악평가와 만족, 부모 관심과 참여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초기에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만족하거나 참여 태도가 긍정적인 아동일수록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지속하고자 하는 아동이거나 아동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 높아질수록 아동들의 공동체성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제안모형을 바탕으로 변인간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족으로 아동이 초기 활동에 만족한 아동일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7〉 각 발달 변화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	표준화	표준	C.R.	비표준	표준화	표준	C.R.
	화계수	계수	오차		화계수	계수	오차	
	우울				공격성			
음악평가 → 초기치	-.014	-.056	.043	-.335	-.05	-.121	.059	-.848
음악평가 → 변화율	.014	.462	.021	.683	.033		.047	.698
태도평가 → 초기치	-.111	-.425	.043	-2.571*	-.101	-.241	.059	-1.704
태도평가 → 변화율	.042	1.349	.021	2.015*	.084		.048	1.763
만족 → 초기치	1.07	.253	.801	1.335	-.718	-.106	1.093	-.657
만족 → 변화율	-.482	-.955	.568	.921	1.399		.883	1.585
부모관심과참여 → 초기치	.523	.172	.568	.921	1.843	.38	.774	2.38*
부모관심과참여 → 변화율	.064	.178	.274	.235	-.999		.626	-1.597
지역사회관심과참여 → 초기치	-1.292	-.651	.355	-3.638***	-1.483	-.468	.484	-3.064**
지역사회관심과참여 → 변화율	.339	1.432	.171	1.978*	1.04		.391	2.658**
	공동체성				대인관계			
음악평가 → 초기치	.001	.011	.006	.091	.017	.294	.011	1.625
음악평가 → 변화율	.008	.481	.003	3.26**	.001		.01	.05
태도평가 → 초기치	.013	.258	.006	2.16*	-.002	-.037	.011	-.205
태도평가 → 변화율	-.004	-.251	.003	-1.724	.005		.01	.459
만족 → 초기치	.314	.389	.111	2.841**	.398	.411	.199	2.005*
만족 → 변화율	-.097	-.337	.048	-2.019*	-.117		.189	-.618
부모관심과참여 → 초기치	.121	.209	.078	1.549	.072	.103	.141	.511
부모관심과참여 → 변화율	-.08	-.386	.034	-2.346*	-.064		.134	-.48
지역사회관심과참여 → 초기치	.046	.121	.049	.939	.023	.05	.088	.259
지역사회관심과참여 → 변화율	-.012	-.092	.021	-.582	-.035		.084	-.416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참여 빈곤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로 아동의 발달부분인 우울, 공격성, 공동체성, 대인관계 변화의 궤적과 효과를 촉진하는 요소들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로 빈곤아동의 우울, 공격성, 대인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발달을 보였다. 또한 아동발달궤적의 조건모형에서 음악평가는 공동체성의 변화율에, 태도평가는 우울과 공격성, 공동체성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은

공동체성과 대인관계의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심과 참여는 공격성 초기치에 부정적 영향을,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우울과 공격성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아동들의 우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소영, 2011; 광윤정, 2012; 성시민,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참여가 우울을 보이는 빈곤아동에게 새로운 배움의 일상을 제공하고, 접하기 힘든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상대적 빈곤감에서 벗어나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비빈곤 가정의 아동보다 우울감이 높거나(민하영·김경화, 2007; Brooks-Gunn & Duncan, 1997), 발달과정에 따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우울이 심하다(손병덕, 2009; 홍연란·도은영, 2014; Hankin et al., 1998)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선행연구에서(김현정 2010; 김신애, 2011; 윤성원, 2013)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공격성을 보이는 빈곤아동들의 폭력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감정조절에 도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부적관계로 나타나 초기에 공격성이 높은 아동에 대해 집중적 관심을 갖고 원활한 적응을 이끌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는 아동들의 참여하는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합주 활동이 사회성, 의사소통, 상호이해, 유대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처럼(정현주·김수지, 2012; 윤성원, 2013), 아동들이 합주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연습을 위해 준비하는 시작단계부터 연습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긍정적 대인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부적관계로 대인관계에 취약했던 빈곤 아동들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참여 빈곤아동들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때 심해지는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공격성까지 개입하고, 취약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을 촉진시키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요소 관련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아동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대한 음악평가와 태도평가는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한계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나 아동들의 음악적 성취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음악적 성취는 사회복지사나 운영자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 강사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이나 아동들의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음악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시 일반적으로 피드백 시간이 계획되어 있듯이 음악 교습 시간처럼 악기만 배우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연습 과정과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거나 서로의 활동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나 공연 등의 활동에 만족할 때, 서로 공

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나간다.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시 지속적인 참여는 음악과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나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가질 때 영향을 받는다(Hewitt & Allan, 2013). 따라서 아동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관심과 참여는 초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관심과 참여가 아닌 부담감을 주는 관심으로 입시위주 교육 환경에서 전공자가 아닌 자녀가 많은 시간을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인식에 대한 전환과 적극적인 지지를 위해 가족 대상 오케스트라 관련 발달 교육이나 외부 활동시 가족 참여 유도, 가족의 소통을 돕는 등의 실천현장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참여아동들이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경험할수록 우울과 공격성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주변인들의 긍정적 관심과 지역사회의 지원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수혜자가 아닌 연주를 통해 베푸는 시간은 공격적 성향을 감소시키기 충분하다. 따라서 빈곤아동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악기 배우는 시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관심을 아동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 담당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셋째,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효과를 촉진하는 평가, 만족, 관심과 참여의 연구결과들은 현재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사나 운영자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개입 요소로 생각하여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다. 평가의 경우 음악성취나 태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개별 접근이 필요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강사 교육이나 정서적지지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관심과 참여에 있어서는 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고 지역사회에 홍보 및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행사 일정들을 파악하여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관심과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관들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나 행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론적 논의나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보여지며,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의 목표 달성에 맞는 성과지표 및 교육과 운영의 효과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이나 정책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전반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대상 선정의 제한점을 가지며, 종단자료의 케이스 부족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개입요소로 살펴본 변수가 적어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추후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보다 세부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 평가와 관련해서 음악 평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혹은 태도 평가에서 집단을 분류하여 아동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R&D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 9(3): 301-308.
- 고경자, 2009,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의 정서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윤정, 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1-14.
- 김경미, 2012, “빈곤아동의 자기결정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 2010,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다솜, 2013,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년·박수빈·홍순범·신민섭·김기현·백령·정연경·송현복, 2013, 『2013년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석경, 2015,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세종문화회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훈, 2009, “문화정책 측면에서 본 예술교육 실태와 과제”, 『문화예술교육연구』 4(2): 107-122.
- 김소영, 2011, “임직원 봉사자 참여 아동문화예술교육의 효과”, 한화 예술터하기 3주년 기념 심포지엄.
- 김신애, 2012, “음악 교육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안식, 2010, “수형자의 종교활동 및 성향이 정신건강과 수용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 안산 자바르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19: 5-31.
- 김은한·유서구, 2012, “가족탄력성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5: 145-171.
- 김지연, 2013,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2세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심리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근, 2006,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김현미, 2013, “‘엘 시스템’ 고찰을 통한 사회 취약층 청소년 음악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0, “합주단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14,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음악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 2012,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교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1(3): 109-134.

- 노충래, 2011, 『지역아동센터 음악교육의 성과와 향후과제: 지역아동센터 음악교육의 효과성 및 다양화 고찰』, GSSHOP·기아대책.
- 노혜련·김수영·김영란, 2010, “프로그램의 운영변수와 외부환경이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학교 폭력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1): 193-220.
- 맹영임·김민·임경희, 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하영·김경화, 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5(6): 33-41.
- 박미애, 2009,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 관련 사례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정익중·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서지혜·조은아, 2010,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기본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연구』, 서울시립교향악단.
- 설연경, 2012,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에서 미적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 분석: 지적·정서적·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도의·김세준, 201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23: 91-114.
- 성시민, 2012,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기능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덕, 200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적 변인에 관한 고찰”, 『아동과권리』, 13(4) : 481-510.
- 신소영, 2013, “엘 시스템아 형 오케스트라의 확산 분석과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인순, 2012, “빈곤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50(4): 115-125.
- 심수민, 2008, “초등학생의 관현악 합주 활동이 인지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음악응용연구』, 1: 87-105.
- 양종모, 2013, “중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변화 연구”, 『음악교육공학』, 14: 119-132.
- 오세근, 2011, 『예술강국 문화대국: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21세기 국가 경영』, 아산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 유문무, 2010, “특집:문화복지를 다시 생각한다: 문화복지의 성장동력- 영화<엘 시스템아>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3(2): 27-46.
- 윤성원, 2013,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학생의 인성에 끼친 영향”, 『음악교육공학』, 16: 137-159.
- 윤혜림, 2014,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초등학교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기범, 2005, “오케스트라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과 비평』, 4(4): 5-13.
- 정경은, 2011,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요인 분석-문화예술 인증수련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28: 165-188.
- 정다은, 2012, “소규모 학교에서 엘 시스템아 프로젝트 적용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동범, 201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탐색”, 『상담평가연구』, 3(1): 61-70.
- 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문화예술교육”, 『사회과학연구』, 11: 99-119.

- 정익중·이봉주·임진영·황태향, 2008,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요구 및 발달과정 분석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연구』, 서울: 삼성고른기획학재단.
- 정익중·김나영·박재연, 2010,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모델 개발연구』, 서울시립교향악단.
- 정익중·조은아·안은미, 2011,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 연구』, 서울시립교향악단.
- _____, 2012,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 3차년도 연구』, 서울시립교향악단.
- 정지영·정지은·이석규, 2014,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교육운영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녹명윈드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3): 63-83.
- 정현주·김수지, 2012, “전국 초중등 학교 내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음악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497-514.
- 최옥채·박미은·서미경·전석균, 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양서원.
- 최종혁·이연·유영주·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질』, 서울: 학지사.
- 현택수, 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101-122.
- 홍연란·도은영, 2014,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및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2): 264-272.
- 황희정, 2013, “문화예술활동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mford, A., 2006, (The) Wow factor: global research compendium on the impact of the arts in education 백령 역, (2007)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세계 예술교육 현장 리포트』, 파주: 한길아트.
- Baum, S., Owen, S., & Oreck, B., 1997, “Transferring Individual Self-Regulation Process from Arts to Academics”,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98(4): 32-39.
- Baumgartner, T., Lutz K., Schmidt, C. F., & Jancke, L., 2006, “The emotional power of music: how music enhances the feeling of affective pictures”, *Brain Res*, 1075: 151-164.
- Booth, E., 2009, “Thoughts on seeing El Sistema”, *Teaching Artist Journal*, 7(2): 75 - 84.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Burton, J. M., Horowitz, R., & Abeles, H., 2000, “Learning in and through the arts: The question of transfer”, *Studies in Art Education*, 41(3): 228-327.
- Catterall, J., 1997, *Involvement in the arts and success in secondary school*. Los Angeles: The UCLA Imagination Project.
- Clawson, H. J., & Coolbaugh, K., 2001, “The YouthARTS Development Project”, *Juvenile Justice Bulletin*. Washington: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http://www.ncjrs.org/html/ojjdp/2001_5_2/contents.html.
- Churchill, M., 2011, 한국형 엘 시스템아(오케스트라교육프로젝트)의 과제와 미래. 서울: 린텐바움뮤직.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ewitt, A. & Allan, A., 2013, “Advanced Youth Music Ensembles: Experiences of, and Reasons for,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1(3): 257-275.

- Jermyn, H., 2004, "The art of inclusion (Research Report No.35)", [http:// thamesvalley partnership.org.uk](http://thamesvalley-partnership.org.uk).
- Lesniak, M., 2012, "El sistema and american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99(2): 63-66.
- Lesniak, M., 2013, "Things to Remember about El Sistema: A Response to "El Sistema-A Perspective for North American Music Educators" by Tricia Tunstall", *Music Educators Journal*, 100(1): 72-74.
- Malchiodi, C. A., 1998, "Art as healing, art in healthcare, and arts medicine: New names for art therapy?", *Art Therapy*, 15(3): 154-155.
- McCarthy, K., 2002, "Building an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Unpublished proposal submitted by the RAND Corporation to the Wallace-Reader's Digest Funds.
- Montero, B., 2006, "Proprioception as an aesthetic sens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4(2): 231-242.
- Torres, L.E., 2002, Ejecucion de la fase 2 del plan de seguimiento y evaluacion de impacto del Sistema nacional del orquestas y coros de Venezuela: Informe final. Universidad de Los Andes Facultad de Medicina Centro de Investigaciones Psicologicas, Merida, Venezuela.
- Tunstall, T., 2013, "Another Perspective: El Sistema-A Perspective for North American Music Educators", *Music Educators Journal*, 100(1): 69-71.
- Waller, D., 2006, "Art therapy for children: how it leads to change", *Clinical Child Psychol Psychiatry*, 11: 271-282.
- Winkley, W., 1996,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신현순 역(2000),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장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Community Orchestra Educational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Poor Children

An Eunmi

(Institute for child study, Sook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n development of poor children by community-based orchestra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orchestra educational activities factors for promoting the effects using longitudinal data are those collected for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Our Neighborhood Orchestra on Children's Learning」 made by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employed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of the factors such as depression, aggressive behavior, commu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development of poor children and evaluation, satisfaction, outsiders'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facilitative factors. The result shows that they displayed significantly positive development in depression, aggressive behavi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t appears that the evaluation on music achieve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communality, while the evaluation on attitude had an impact in the initial value of depression, aggressive behavior, and communality, also the sense of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commu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nditional models. And parents' attention and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aggressive behavior, while the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showed a positive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poor children taking part in orchestra-bas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vide a practical basis for social workers' direct invention, and look for new ways by shedding light on the merits of the cultural/art education of poor children that engage in the community-based orchestra educational activities.

Key words: development of Poor Children, Orchestra, latent growth model

[논문 접수일 : 16. 01. 11, 심사일 : 16. 02. 09, 게재 확정일 : 16. 02. 23]